

# 〈우렁각시〉의 두 기표와 두 금기에 담긴 욕망과 민중의 바람

Desires and People's Wishes Embedded in the Two Signifiers and Two Taboos of <Snail Maiden>

유광수\*\*

**국문요약** 〈우렁각시〉는 우렁이 여성으로 변신하여 남성과 혼인하는 이물교혼담으로, 총각이 금기를 깨뜨림으로써 비극적 상황을 초래하는 설화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승된 각편을 보면 오히려 대다수가 행복한 결말이거나 고난을 극복하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렁각시〉에 두 개의 결핍이 있고 두 개의 금기가 있음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욕망과 결핍이 어떻게 길항하며 작용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렁각시는 성적 기표와 풍요 기표, 둘을 지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욕심으로 전화되는지를 밝혔고, 욕망의 충돌로 인한 작용과 지배자 사또의 착취가 정당화되는 기제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우렁각시〉 이야기가 세 개의 서로 다른 결말로 이루어져 있음을 분석하여, 민중의 염원과 바람이 전승 과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았다.

**핵심어** 우렁각시, 기표, 금기, 관탈민녀, 이물교혼

**차례** 1. 서론  
2. '우렁각시'의 두 기표와 두 개의 금기  
3. 욕망의 충돌과 세 개의 결말  
4. 결론

민녀설화(官奪民女說話)의 성격,<sup>4</sup> 유형 분류를 통한 의미 분석,<sup>5</sup> 특정 설화와의 관련성을 통한 분석,<sup>6</sup> 화소 및 형상화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2, 189~202쪽; 유중선, 「조개색시구혼민담 소고」, 『한국민속학』 5, 민속학회, 1972, 48쪽; 안상훈, 「러시아 민담 〈아름다운 아내〉와 한국 민담 〈우렁각시〉 비교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2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687~723쪽.

4 최래옥의 지적 이후, 모든 연구는 특정하지 않아도 〈우렁각시〉 설화가 관탈 민녀 화소를 지니고 있음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최래옥, 「관탈 민녀형 설화의 연구」, 『장덕순선생 화갑기념논문집』, 장덕순선생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81, 105쪽.

5 이수자, 「〈우렁색시〉설화의 연구: 변이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7, 이화여자대학교, 1984, 158~184쪽; 윤혜신, 「입사식의 구조를 통해 본 설화의 유형과 변이양상 연구: 〈우렁색시〉를 대상으로」, 『연민학지』 9, 연민학회, 2001, 261~314쪽; 김군태, 「〈우렁이 색시〉 각편의 유형과 의미」, 『문학치료연구』 1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9~44쪽.

6 김혜미, 「설화 〈우렁색시〉, 〈용자 살리고 얻은 색시〉, 〈새털 옷 입고 왕이 된 남자〉에 나타난 여성의 행동방식과 관계 지속의 문제」, 『겨레어문학』 48, 겨레어문학회, 2012, 69~99쪽; 이성희, 「〈우렁색시설화〉 연구: 〈용녀귀환설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39, 국립민속박물관, 2016, 235~257쪽; 이성희, 「고난극복형 〈우렁색시설화〉의 신화적 성격」, 『구비문학연구』 43, 한국구비문학회, 2016, 159~189쪽; 주재우, 「조선족 우렁각시 설화의 변이 양상과 의미」, 『어문론집』 50, 중앙어문학회, 2016, 317~343쪽.

## 1. 서론

〈우렁각시〉는 널리 알려진 설화이다.<sup>1</sup> 우렁이 여자로 변신하여 남성과 혼인하는 이물교혼담으로, '나부설화(螺婦說話)'로 설명한 것으로부터,<sup>2</sup> 외국 설화와의 관계,<sup>3</sup> 관탈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4093488).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1 이 각편의 제명은 '우렁각시', '우렁색시', '조개각시' 등 다양하게 존재하나, 본고에서는 '우렁각시'로 통칭하겠다.

2 손진태,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31~37쪽.

3 위의 책, 31~37쪽; 김현룡, 「螺中美婦說話形成考」, 『국어국문학』 55~57

측면에서의 분석<sup>7</sup> 등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렁각시> 설화를 우렁각시가 제시한 ‘기한을 지켜달라’는 금기를 총각이 지키지 않아 결국 비극적 과정을 맞이하는 것으로 주로 이해해 왔다.

물론, <우렁각시> 설화에는 비극적 종결이 존재한다. <우렁각시> 각편에 두루 나타나는 기본 화소는 총각이 홀로 논밭을 갈며 “이 논을 파서 누구하고 먹고 살까?” 하는 한탄의 노래를 하는데, 이에 우렁이 “나하고 먹지, 누구하고 먹어”라고 대답하는 화소다. 또 하나 중요한 화소는 우렁각시를 사또<sup>8</sup>가 납치해 가는데, 이를 알게 된 총각이 화병에 죽은 후 새가 되어 날아가 “넌들 넌들 네탓이나, 넌들 넌들 내 탓이나, 우리 어머니 탓이로다”는 노래를 부르는 화소다. 각편의 여러 부분은 전승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이 노랫말은 변하지 않는데, 이는 <우렁각시> 서사에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sup>9</sup> 이런 기본 화소의 기능을 통해 그간 <우렁각시>를 비극적인 설화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우렁각시>가 비극적인가?’는 조금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설화의 발생적 상황에서 볼 때는 <우렁각시>에 비극성이 강조되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이 전승되면서 겪어온 민중적 열망과 민중적 확산의 측면에서도 여전히 그러한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렁각시> 설화가 발생적 상황에서는 ‘전설적 경이’

7 정상진, 「〈나중미부〉 설화의 전승양상과 비극성」, 『한국문학논총』 33, 한국문화회, 2003, 2~61쪽; 김종근, 「〈왕이 된 새새이〉 설화의 서사적 특성과 의미」, 『겨레어문학』 38, 겨레어문학회, 2007, 133~165쪽; 노제운, 「나무꾼과 선녀」, 『우렁각시〉 설화의 정신분석적 의미 비교연구」, 『어문논집』 57, 민족어문학회, 2008, 5~39쪽; 서은경, 「〈우렁각시〉설화의 관음영험담적 조명과 의미」, 『민속연구』 34,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43~78쪽; 김영미, 「〈우렁각시〉설화에 나타난 ‘환상성’과 ‘소문’ 모티프 연구」, 『한민족어문학』 88, 한민족어문학회, 2020, 147~176쪽.

8 여러 각편에서 각기 ‘사또’, ‘원님’, ‘임금’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당대 권력자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각편을 인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또’로 통칭하였다.

9 설화에 존재하는 화소의 기능적 측면에서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화소의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는 블라디미르 프로프, 『민담형태론』, 유영대역, 새문사, 1987, 1~177쪽 참조하고, 해당 화소의 기능적 측면에 따른 맥락적 내용적 의미에 대해서는 블라디미르 프로프, 최애리 역, 『민담의 역사적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0, 1~462쪽 참조.

였을지는 모르나, 이후 전승의 과정에서는 ‘민담적 가능성’에 더 치우쳐 전승되었을 수 있다.<sup>10</sup> 즉, 발생적 상황의 설화와 전승적 상황의 설화는 전혀 다른 작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설화를 발생적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설화를 향유하는 민중층의 열망과 전승의 이유와 힘을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렁각시>를 비극적 측면에서만 조망하는 것은 온당하다 할 수 없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우렁각시>의 여러 각편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우렁각시>를 비극적 결말이라고만 단정지을 수 없다. 즉,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종결이 더 많고 긍정적 전망을 드리우는 종결 역시 적지 않아 결코 비극적 종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렁각시>의 결말 맺음을 통해 <우렁각시>를 둘러싼 민중적 열망과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데, 이는 설화 전승에 중요한 측면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를 주목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었다.

결말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타당하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한두 편의 각편만으로 확장시켜 논의하는 것보다는 전승된 각편들의 비중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각편에서 긍정 부정으로 종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설화가 여러 곳에 수록될 수도 있고, 동일한 구연자가 동일 내용을 여러 매체를 통해 반복할 수 있으므로, 특정 시기의 특정 상황에서 수록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우렁각시> 각편들로만 논의를 한정했다.<sup>11</sup> 실제로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총

10 ‘전설적 경이’는 세계의 횡포가 자아에게 세계의 경이로 나타남으로써 자아가 세계의 경이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를 의미하고, ‘민담적 가능성’은 세계에 대한 자아의 우위를 전제로 자아가 세계를 정복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설적 경이’와 ‘민담적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것은 조동일, 「自我와 世界의 小説的 對決에 관한 試論」,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66~136쪽 참조하고, 최근 가능성 측면에서 민담을 분석한 신동훈, 『민담형 인간』, 한겨레출판, 2020, 1~312쪽 참조.

11 『한국구비문학대계』 외에도 다수의 설화모음집이 존재하고, 그 설화집에 <우렁각시> 각편이 있어 논의를 위해서는 그 각편들 역시 모두 포함하

27편이라는 유의미한 각편이 채록되어 있기에 해당 사항을 검토하는데 충분하리라 본다.

둘째로 논의해야 할 것은 <우렁각시>에 나타난 금기가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각시가 총각에서 ‘기한을 채워야 한다’는 식의 금기만을 부각시켜 논의했지만 실제로 이 금기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금기를 지키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이 금기는 종종 생략되기까지 할 정도로 서사에 고정적이지 못하다.<sup>12</sup> 사실 사또가 각시를 납치해 가는 재앙이 발생한 것은 각시가 총각에게 제시한 금기 때문이 아니라, 총각이 어머니에게 제시한 금기를 어머니가 어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또가 각시를 납치해 가게 된 이유는 시어머니가 누룽지를 먹겠다는 욕심으로 각시를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으로, 총각이 제시한 ‘절대로 각시에게 밥을 가지고 나가게 하지 말라’는 금기를 어머니가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렁각시>에는 금기가 2개 존재하지만 이를 주목하지 않았다. 실제 재난은 1차 금기 때문이 아니라 2차 금기를<sup>13</sup> 어겼기 때문에 발생한다. 1차 금기와 2차 금기는 그 목적과 이유가 다른데 그 차이가 <우렁각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점이다.

셋째로 살펴볼 것은 ‘우렁각시’를 단순히 결핍을 충족시키는 존재로서만 포괄적으로만 이해했는데, 각시의 상징적 측면이 두 개의 기표로 각기 달리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시가 지닌 두 기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렁각시>에 담긴 민중적 열망을 읽어내는 핵심이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각 설화집에 채록된 각편이 동일 지역의 동일 각편의 설화집마다 각기 수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우렁각시>의 결말을 확인하는 양상에 유의미한 편향을 줄 수 있다. 즉, 범박하게 말해서 ‘긍정적 결말’, ‘부정적 결말’의 비중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반복적으로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된 『한국구비문학대계』만을 대상으로 했다.

12 가능적으로 필요한 화소라면 반드시 꼭 제시되어야 하고, 금기를 어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서사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각시가 제시하는 금기의 경우에는 이런 고정적 특징이 약하다.

13 본고에서는 각시가 총각에게 ‘기한을 지켜달라’는 금기를 ‘1차 금기’, 총각이 어머니에게 ‘각시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금기를 ‘2차 금기’로 지칭하겠다.

다. 아울러 두 기표의 기능적 측면이 외부 가해자인 사또에 의해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우렁각시>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사또가 우렁각시의 어떤 기표를 취하기 위해 어떤 점을 파괴했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에 그동안 단순히 권력자의 전횡 정도로 이해했던 것이고, 나아가 비극적 전망으로만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우렁각시의 두 기표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우렁각시>에 담긴 민중적 소망과 열망을 이해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런 세 가지에 주목하여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우렁각시> 각편 27편을 살펴보고 하겠다.<sup>14</sup> 이를 통해 <우렁각시>에는 두 개의 금기와 두 개의 결핍이 존재하고, 그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로서 ‘우렁각시’가 두 측면의 기표로 작용하며, 각기 다른 두 기표 중에서 권력자의 침탈로 인해 무엇이 훼손되고 무엇이 존속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민중적 열망에 의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우렁각시>는 세 개의 서로 다른 결말로 종결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결코 단순한 비극만이 아닌 서로 다른 결말은 당대 민중들의 강력한 소망과 바람이 담겨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sup>15</sup>

## 2. ‘우렁각시’의 두 기표와 두 개의 금기

### 2.1. 성적 이미지와 풍요 이미지

<우렁각시>에서 ‘우렁각시’는 두 개의 기표로 존재한다. 동일 존재가 각기 다른 두 측면을 상징하는 것인데, 첫째는 ‘성적 이미지’이고 둘째는 ‘풍요 이미지’이다.

우렁각시가 성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기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홀로 사는 남성 시각에서 우렁이 ‘각시’인 여성

14 구체적인 27편의 제명은 본문에 제시한다.

15 본고에서 인용은 모두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하고, 각편 이름 옆의 괄호 안에 ‘:’을 좌우로 해당 권과 해당 쪽수를 표시한다. 인용이 번다할 경우 생략하는데, 생략 부분을 ‘...’로 표시한다. 인용문에 괄호 안 내용은 원채록자의 해설이다.

이 된다는 점이 우선 그렇다.<sup>16</sup> 우렁은 생물학적으로 여성 남성의 구별이 있을 수 없으나, 우렁이 여성이 되는 것은 우렁을 성적 기표로 존재하기 위해서이다. 즉, 이 이야기를 향유하는 민중에게 ‘우렁’은 남성의 결핍된 성적 측면을 충족시켜주는 귀중한 존재로 기능한 것이다.

이렇게 성적 이미지로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 여러 각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성 성기로 흔히 환유되는 ‘조개 각시’ 각편이 있는 것도<sup>17</sup> 그렇고, 우렁이 논의 찢든한 빨 속에 파묻혀 있었다는 것 역시 성적 기표로 읽기에 충분하다. 또 우렁이 각시가 된 이후에도 성적 이미지로 강력하게 기표화 되는데, 각시가 밥을 해서 가져가다 사또를 만났을 때 그녀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러하다.

숨었는데, 그 사또가 이러어케 가다보닝께. 덤불 뒤에서 이상한 빛(빛)이 나오. 이상한 빛. 그러니까, ... 그 하인을 시켜서,

“네 저 빛나는 저기를 가봐. 가봐서, 꽃이 꺾거든 꽃을 꺾어 오구, 물이 샘물이거든 물을 떠 오구. 사램이거든 사람을 데려오라.” 구 그랬어요.

아 그래 하인이 가보니까, 물 찬 제비같은, 새택이, 밥팡우리를 내리 놓구 오돌오돌 떨구 앉았담 말여.

“그래 우리 사또께서 데려오라구 하셨으닝개 가자.” 구.

“아이구 내가, 워트게 가느냐? 나 목 가겠다.” 구.

이 옥고름을 뚝 떼 주면서,

“이것백이 읍더라구 가 전해 달라구. 이것 이것백이 읍더라구 좀 해 달라.” 구. 그러구 찿어. ...

하인이 가서,

16 ‘총각’이란 점이 강조되는 것이나, ‘홀아비’라는 점이 강조되는 것이 그것이다. 때로는 구연자가 구연을 하다가 머슴살이로 착가했으나 실제로는 홀아비였다는 점을 기억해서는 그것을 바로 잡기도 할 정도로(〈우렁색시〉 4-5: 775~777), 총각이 결혼하지 못하는 결핍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17 “이 팔뚝을 뛰지가지 누강나강 목고 살고.” “니강 나강 목고사지.” 조개비(조개)가 하나 방구에(바위에) 붙어가 입을 뽐뽐뽐뽐 하며, ‘아이구, 조놈의 조개비가 카는구나’ 싶어가, 똑 떠다가 자기 집에 딱 갔다 갔던. 〈총각과 조개 처녀〉 7-1: 271~273.

“아주 예쁜 새택이 앉어가지구, 못 오겠다구 하면서 이겁백이 읍더라구 하라구 고름을 떠 찿습니다.”

아 그 될 일여?

“느이가 만일 못 데려올 것 같으면 내 행차를 그리 가자. 내 교군을(가마를) 떼며라.”

그리구 그리 가서는, 행차에다 반작 집어 앉어가지구 가 버렸어요.

-〈우렁각시〉 4-6: 192~196

사또가 말한 “꽃을 꺾다”, “샘물을 뜨다”는 성적 의미로, 사또가 “사람이라면 데려오라”는 말은 해당 존재를 그가 성적 상대로 대상화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또, 하인의 모습에 포착된 각시의 모습은 성적 긴장감이 고조된 전형적 모습이다. 옥고름을 떼어주는 것 역시 성적 희롱의 상황으로, 이렇게 각시가 ‘옥고름’을 떼어주기도 하지만, ‘신발’을 주고 ‘가락지’를 내주기도 하는 각편도 있는데,<sup>18</sup> 모두 성적 상징이다. ‘옥고름을 떼 준다’는 결국 옷을 벗는다는 의미이고, ‘신발’을 준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준다는 의미이다.<sup>19</sup> 가락지를 빼주는 것은 성적 의미와 함께 앞서 이루어진 성혼을 깨뜨린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이렇게 우렁각시는 성적 기표로 존재한다.

우렁각시의 두 번째 기표는 ‘풍요’다. 우렁각시가 풍요의 상징인 ‘풍요의 빨’, ‘화수분’으로 기능하는데, 이는 모든 각편에 기본으로 깔려 있다.<sup>20</sup> 총각이 일을 하러 나간

18 〈우렁 색시 1〉 5-2: 163~165.

19 신발을 벗어주는 것은 성적 상징이며, 자기 존재 증명이다. 『삼국유사』 「낙산시대성 관음 정취 조신」에서 원효가 신발을 통해 관음의 진신을 만났음을 깨닫는데, 이는 신발을 통한 존재 확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신발은 여성 성기를 상징하는데, 유리구두를 쥐고 애무하듯 쓰다듬는 행위나, 맞지 않는 여성에게 억지로 발을 집어넣으려다가 발을 자르는 등의 그로테스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성적 환유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서는 유광수, 「만남과 깨달음으로 본 〈洛山二大聖 觀音·正趣 調信〉의 의미」, 『연세어문학』 32,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2000, 115~146쪽; 주경철, 『신데렐라 천년의 여행』, 산처럼, 2005, 1~307쪽.

20 화수분 화소에 대해서는 신동훈, 「설화 속 화수분 화소의 생태론적 고찰」, 『구비문학연구』 39, 한국구비문학회, 2014, 1~28쪽; 김복순, 「화수분설

사이에 각시가 풍성한 밥상을 차려 놓는데, 이는 총각이 원하기는 하지만 누릴 수 없던 풍요를 생산해낸 것이다. 총각은 각시가 차려 놓은 풍성한 밥상을 받아서 먹고 향유한다. 이는 총각의 가난으로 인한 결핍 상황을 채워주는 것으로, 각시가 풍요의 상징임은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구현되기까지 한다.

물항 속에서 이쁜 각시가 나오더니 살 한 주먹 갖고 구구구  
 현재로 꿩이 시꺼먼이 오드라우. 부지땀을 이렇게 흘떡 땀진  
 게 꿩 하나가 떡 꺼울러 죽은게 그놈을 뜯어서는 좇아서 다허  
 서는 밥 딱히서 딱 덮어 놓고는 물항 속으로 들어가드라우.

- <우렁 색시> 5-7: 191~193

담 너머로 뛰어가서 가만히 본게 우렁이, 우렁뚜껍이 이렇  
 게 열어지드래야. 열어지더니 거그서 이쁜 여자가 하나 나오  
 더니 이렇게 치(키)여다 대고 머리를 털털 털은게 쌀이 막 우  
 수르르 쏟아지드래야. 그놈을, 쌀을 싹쳐서 밥을 허고 또 뛰,  
 “꼬고.”

허고, 막 쌀을 한 주먹을 이렇게, 불르고서는 이렇게[조사  
 자-닭 모이 주는 시늬를 하며] 찌틀(홀뜨려) 준게 닭이 와서  
 와 좇어먹드라네. 근게 그놈을 탁 잡아갖고서나 그 반찬을 만  
 들고, 그리 갖고선 만들고 쌀밥 허놓고 그렇게 허서 밥을 허놓  
 드래.

- <우렁에서 나온 처녀> 5-4: 836-839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환상적 장면은 화  
 수분 설화에 기본이 되는 것으로 바로 우렁각시가 이런 측  
 면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총각의 결핍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풍성하지 못한 부족  
 이었다. 즉, 총각은 일할 논과 밭이 있었고, 그 논과 밭을  
 묵혀 두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나가 일을 한

다. 그럼에도 총각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는다. 각편  
 에 따라 총각이 ‘머슴’ 노릇을 했다고도 말하는데, 이는 열  
 심히 노력해도 더 나아질 수 없는 삶을 단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즉, 총각은 일을 했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나아지  
 지 않는 곤핍한 삶을 살았다. 그 결핍되어 있는 상황에 우  
 령각시가 나타나 풍성한 먹거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렇게 우렁각시는 단순히 성적 기표만이 아니라 풍요  
 의 기표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이 두 측면이 결국 총각으  
 로 대표되는 민중에게 결핍된 두 측면인 것이다. 우렁각시  
 의 이런 두 측면을 분리해서 보지 않았기에 그동안 명징하  
 게 <우렁각시>에 담긴 민중적 열망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우렁각시의 성적 기표와 풍요 기표의 두 측면은 총각  
 에게 만족을 가져왔다. 하지만 사또로 표상되는 권력자에  
 의해 각시가 납치됨으로써, 두 측면이 모두 박탈된다. 중  
 요한 점은 사또는 결과적으로 총각의 두 측면을 모두 빼앗  
 은 것이 되었지만, 사또는 각시의 성적 기표만을 주목해서  
 빼앗았다는 것이다.<sup>21</sup> 즉, 성적 기표와 풍요 기표의 두 측  
 면 중 사또는 성적 기표로서 각시를 빼앗았는데, 이는 민  
 중 입장에서는 단순한 성적 측면만이 아닌 풍요의 측면 역  
 시 훼손되고 박탈되는 일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각시의 두 기표를 제대로 보아야, 권력자의 향  
 락을 위한 성적 착취가 일반 민중에게는 생존의 문제와 직  
 결된다는 <우렁각시>가 담고 있는 핵심적 목소리를 제대  
 로 읽어낼 수 있다. 권력자에게는 도락이겠으나 민중에게  
 는 그것이 먹고 사는 절실한 문제이고, 뺏는 자에게는 사  
 소한 일이겠으나 뺏기는 자에게는 절박한 문제이며, 권력  
 자에게는 그것이 아닌 다른 선택지가 많겠지만 민중에게  
 는 그것이 유일무이한 것이란 점이 <우렁각시>가 담고 있  
 는 민중적 의식이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렁각시가 사또에게

화에 투영된 기저 의식과 담론 양상, 『동아시아고대학』 31, 동아시아고  
 대학회, 2013, 31~61쪽 참조.

21 사또가 우렁각시를 납치한 이유는 성적 기표만 보고 탐욕했기 때문이다.  
 이때 사또는 우렁각시가 풍요로운 밥상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것을 알  
 지 못했다.

잡혀간 후에는 더 이상 풍요로운 밥상을 차리지 않거나 못한다는 점이다. 즉, 우렁각시는 더 이상 풍요로운 생산성을 보여주지 않거나 못한다. ‘안 하는 것’은 각시의 주체적 선택이고 ‘못 하는 것’은 각시가 처한 상황에 따른 필연적 귀결인데, 어쨌든 각시는 더 이상 밥상을 차리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가 사또 입장에서 각시는 단지 성적 착취의 대상이지 물질적 착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냉정히 말해, 지배자 입장에서 ‘우렁각시가 만들어내는 정도의 풍요’는 사실 풍요도 아닌 것이다. 그 풍성스러움은 민중들 입장에서 대단한 것이었을 뿐이지, 지배층 입장에는 대단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각시가 비록 밥상을 차릴 수 있다 해도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각시는 납치됨으로써 그녀가 지닌 성적 측면만 착취된 것이 아니라 풍요 측면 역시 거세되었던 것이다. 납치된 우렁각시는 더 이상 ‘우렁각시’가 아닌 훼손된 가치가 된 것이다.

여기에 <우렁각시>에 담긴 민중의 두 번째 시각이 존재한다. 민중이 원한 풍요로움이란 무제한의 엄청난 부의 축적이나 과장된 허세가 아니라 일상적 풍성함이자 삶으로서의 기본적 풍요란 점이다. 그 삶을 권력자는 자신의 무제한적 욕심으로 뺏고 짓밟아 없애 버린 것이다.

## 2.2. 두 개의 금기와 결핍·욕망의 길항

<우렁각시>에는 두 개의 금기가 존재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우렁각시가 총각에게 부여하는 “기한을 지켜달라”는 1차 금기만을 주목했는데, 기실 총각이 모친에게 부여하는 “각시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2차 금기 역시 중요하다. <우렁각시> 서사를 크게 둘로 나누면, 총각과 각시의 만남이란 전반부와 사또에 의해 각시가 납치된 이후 이야기까지의 후반부가 된다. 전반부 후반부에 각기 금기가 하나씩 주어지는 셈인데, 그래서 전반부까지만 있는 각편의 경우는 1차 금기만 주어지고, 후반부까지 있는 각편의 경우는 2차 금기까지 모두 나타난다.<sup>22</sup>

<sup>22</sup> 각편이 이렇게 다르게 종결하는 것은 민중적 지향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구연자의 기억에 따라 종종 금기가 생략되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전반부만 있는 각편의 경우에는 1차 금기가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후반부까지 모두 있는 각편의 경우에는 2차 금기가 지켜지지 않고 모두 깨진다는 점이다.

1차 금기는 각시가 총각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개인적’ 수준의 금기이고, 2차 금기는 총각이 어머니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선 ‘사회적’ 수준의 금기라 할 수 있다.<sup>23</sup> 총각이 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그 개인에게 한정된 것으로 그 결과 역시 총각 개인에게로 한정된다. 금기를 지키지 않을 때 초래될 결과는 총각의 성적, 물질적 결핍이 채워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2차 금기에서 어머니가 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어머니가 각시로 인해 풍요롭게 먹고 지내는 자신만의 상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은 물론 아 들인 총각에게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각시의 박탈은 총각에게 주어졌던 성적, 물질적 풍요를 사라지게 하는 문제로 어머니 개인적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1차 금기가 개인적 수준의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라면 2차 금기는 사회적 수준의 상대적으로 큰 문제인 것이다.

1차 금기가 개인적 수준에 한정되기에 금기를 어기는 총각은 자기 존재 자체의 내적 가해성을 지닌다. 이미 우렁각시가 생산해낸 물질적 풍요를 맛보았지만 그보다는 성적 결핍을 채우려는 욕심이 금기를 깨뜨리게 만든다. 기한을 지키면 모두 충족할 수 있지만, 욕심에 과잉된 그는 이를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충족을 스스로 깨뜨려 버리는 내적 가해성을 지닌다. 본질적으로 우렁각시가 지닌 두 기포 중 총각은 ‘성적 측면’에 더 집중했기 때문인데, 이는 풍요보다 성적 결핍을 채우려는 지극히 즉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론한다.

<sup>23</sup> ‘개인’과 개인 이외의 세계를 ‘사회’로 보면, 이는 영향력의 범위가 개인에 한정되느냐 개인과 주변까지 펼쳐지느냐의 문제이다.

물질 욕심이다.

2차 금기를 깨뜨리는 자는 어머니다. 어머니는 “누룽지를 먹고 싶어서”와 같은 풍요를 더 추구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금기를 어긴다. 그로 인해 우렁각시가 생산해낸 물질적 풍요를 궁극적으로 깨뜨릴 뿐만 아니라 아들 총각의 성적 충족까지 깨뜨리고 만다. 어머니는 우렁각시의 두 기표 중 ‘풍요의 측면’만을 보았기 때문이다.<sup>24</sup>

〈우렁각시〉에 나타난 금기가 깨지는 이유는 1차 금기든 2차 금기든 모두 ‘우렁각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에 혹은 보지 않았기에 일어난다. 우렁각시는 ‘성적’이면서도 ‘풍요’의 존재였다. 이 둘은 함께 있는 것이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렁각시의 존재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에게 자발적으로 찾아온 우렁각시의 본질은 총각의 두 결핍을 채워주려는 것이고, 그것은 두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는 우렁각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 그것을 총각은 우렁각시를 ‘성적’으로만 소비하려 할 때 금기를 깨뜨리게 되었고, 어머니는 우렁각시를 물질을 생산해내는 ‘풍요’로만 소비하려 할 때 금기를 깨뜨리게 되었다.

〈우렁각시〉에 나타난 금기의 본질은 존재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우렁각시가 “기환을 지켜 달라”는 것은 ‘나를 성적 존재로만 보지 말고 본질 그대로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였고, 총각이 “각시를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은 ‘풍요를 가져왔다고 며느리인 각시에게 일을 모두 다 부여하지 말아 달라. 그녀는 내게는 소중한 아내이다’는 것이었다. 즉, 두 금기 모두 ‘우렁각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의 본질 그대로 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은, 그래서 금기를 깨뜨리게 된 것은, 모두 다 욕심 때문이었고 그 욕심의 본질은 ‘한쪽 측

면만 보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한쪽 측면만 과도하게 집착해서 보는 것’이 인간 욕심의 본질이고 그 욕심이 모든 것을 깨뜨린다고 〈우렁각시〉 설화가 지적하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필연적이다. 그런 인간의 욕망이 종종 욕심과 쉽게 혼동되는데, 〈우렁각시〉는 욕망이 욕심으로 전화되는 지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는 욕망에 시달리는 인간이 왜 욕심에 사로잡히고 마는지에 대한 민중적 답을 결핍과 욕망의 길항을 통해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총각, 사또, 어머니를 통해 드러냈다.

총각의 결핍은 두 측면이었고 이는 우렁각시의 자발적 출현으로 채워졌다.<sup>25</sup> 그러나 총각은 금기를 지키지 못한다. 이는 이미 풍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욕망이 욕심이 되고 말았다. 즉, 남성과 여성의 길항에서 총각은 여성을 성적 도구로 대상화했다. 총각은 각시에게 ‘내게 왔으니 나와 동침해야지’와 같은 제 편한 대로의 생각으로 동침을 요구했다. 각시는 분명하게 “기다려달라”는 자신의 욕망을 말했으나, 총각은 이를 무시하고 자기 욕망만을 앞세운다. 이것이 바로 1차 금기의 실체이고 1차 금기가 깨지게 된 이유이다. 냉정히 말해서 밥상을 차려냈다고 성적 만족까지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총각은 이를 욕망이란 이름으로 스스로 정당화했는데 이는 남성 편위의 시각이다. 이렇게 총각은 남자라면 누구든 지니고 있는 성적 욕망에서 즉물적 가해성을 지닌 욕심으로 전화하였다. 즉물적 가해성의 총동이 남성·여성의 길항 속에서 욕심으로 전화하게 한 것이다. 그 순간 우렁각시는 풍요와 성적 기표를 모두 지닌 존재의 본질이 아니라, 성적 측면만으로 보이게 된 것이고, 이것이 대상을 치우쳐 소비하게 된 이유이며, 금기가 깨어지게 된 이유이다.

각시를 뺏어가는 가해자 사또의 결핍은 걸으로 드러나

24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각시를 납치해 가는 불행을 초래하는 가해자 사또가 각시의 ‘성적 측면’만 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즉,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모두 두 기표 중 하나만을 보기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25 총각이 가난과 홀로 사는 고단함의 탄식조 노래에 직접 부응한 것은 우렁각시가 이미 그 두 결핍을 채워주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부응이었다.

지 않지만 각시를 취한 목적과 행동을 통해 그는 이미 욕망을 넘어선 탐욕의 화신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사또는 성적 쾌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잉여 쾌락으로서 각시를 취했다. 그렇기에 사또의 결핍은 인간 본연의 결핍을 넘어선 상징계적 욕망에서 이를 수 없는 무모한 욕심에 사로잡힌 모습이라 할 수 있다.<sup>26</sup> 즉, 사또는 우렁각시를 성적으로 소비했으나, 그 우렁각시로 완벽한 만족을 취할 수 없다. 이는 인간이란 존재의 욕망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에 그렇다. 그렇게 사또는 성적 욕망이란 핑계를 댈 허위의 거짓으로 자신과 주변을 속이며 스스로 끝없는 탐욕에 집착하는 존재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는 강자이고 총각을 비롯한 다른 이들은 약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또가 각시의 성적 측면을 착취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는 남성·여성의 길항이 아닌, 약자·강자의 길항으로 성적 긴장보다 계급적 계층적 긴장의 불편함을 초래한다.

어머니의 가해성은 그녀가 ‘누룽지를 먹고 싶다’ 혹은 ‘머느리가 혼자 먹을 것 같아’와 같은 물질적 욕심으로 대변되지만, 보다 더 깊은 이유가 내재되어 있다. 이는 시대 혹은 세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레 사라지는 결핍에 대한 아쉬움이 새로운 세대에 대한 시기, 질투로 대체되어 욕심이 된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대간 길항인 것이다. 어머니 입장에서 성적 매력에 사라진 자리에 남은 빈 공간은 욕심이 배태되는 공간이고, 그 자리에 부

26 라캉은 인간의 욕망을 분석하면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현실에서 완벽한 욕망 충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인간 현실이 언어처럼 상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징계’이기에, 특정 욕망을 추구하나, 그 욕망은 완벽한 충족을 이루지 못하고 욕망의 잉여인 ‘실재계(소타자)’가 달아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구성되는 이유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이행하는 탄생을 통해 주체가 거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의 욕망과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 등에 대한 자세한 것은 권택영 편, 민승기·이미선·권택영 역, 『자크 라캉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2000(13쇄), 15~49쪽; 장 벨맹-노엘, 최애영·심재중 역, 『문학 텍스트의 정신분석』, 동문선, 2001, 38~47쪽;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2001, 65~94쪽; 김종주 역, 『라캉 정신분석의 핵심용어』, 하나의학사, 2003, 64~73, 116~121, 153~155, 245~250쪽 참조.

러움과 선망이 쉽게 치우침의 욕심으로 전화하였다.<sup>27</sup> 이는 각시에 대한 폭력성으로 전화하기 쉽다.<sup>28</sup> 이런 폭력성이 2차 금기에 내재되어 있고, 이는 총각과 어머니로 표상되는 신세대와 구세대의 길항으로 드러나고, 결국, 상대적 결핍,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가 물질적 풍요를 깨뜨리는 욕심으로 전화하고 만 것이다.

### 3. 욕망의 충돌과 세 개의 결말

#### 3.1. 치환·호도를 통한 착취의 정당화

금기를 어김으로 인해 불행이 찾아왔다는 설화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우렁각시>를 보다 보면 쉽게 놓치게 되는 것이 사또의 폭력성이 정당화 된다는 사실이다.

사또가 각시를 납치해 간 것은 사또의 심정적 결핍에 의한 그의 폭력적 행태가 본질이지만, 이를 2차 금기를 어긴 어머니의 문제처럼 여기게 되었다. 이는 약자와 강자의 갈등의 길항이 약자들끼리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나 다름없다. 기실 어머니가 금기를 어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는 문제적일 수 있으나, 그것이 각시를 납치해 가는 것을 정당화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금기를 어김’에 있다고 호도함으로써 사또의 폭력이 은폐되고 심지어 정당화되기까지 한 것이다.

이렇게 호도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어머니가 금기를 어긴 후 아들이 어머니를 닮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머니인 것처럼 호도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어머니의 잘못이 있으나, 시

27 이런 점이 고부갈등의 핵심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인간 본연의 감정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서은아, 「현대 고부갈등 해결을 위한 <우렁각시>의 문학치료적 가능성 탐색」,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2006, 469~500쪽.

28 우렁각시에 대한 어머니의 가해성은 <우렁 속에서 나온 미인> 5-1: 265~267에서는 “모자가 살다가, 툇구녁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디” 우렁각시가 먹고 살게 만들었지만, “총각 씨어머니가 우렁을 건져다 없애버렸대”라는 식으로 원색적으로 그려지기까지 한다.

선이 본질적 해악의 근원인 사또를 향하지 못하는 기저에는 ‘사또가 약자의 여성을 빼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는 상황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옳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내면화의 기제가 작용한 것이다.<sup>29</sup>

각시를 빼긴 총각은 사실 죽을 필요가 없었다. 결핍된 이전 상태로 살면 그만이다. 각시를 빼긴 상황이 슬플 수는 있으나, 그것이 죽을 문제는 아니었다. 총각이 그렇게 죽을 지경으로 슬퍼하다 실제로 죽기에 어머니의 잘못이 더 강조되고 부각된 것이고 사또의 행위는 정당화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죽은 총각이 죽어 변신한다는 것에 있다. 주로 새로 변신하는데 가해를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인데, 이는 가해자의 행동을 상수로 뒀으로써 빚어지는 비극의 정당화 기제로 작동한다. 즉, 가해자는 이전과 다름없이 정당하게 지내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본질을 바꿔 피하고 달아나듯 행동하게 되는 것이 마치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내비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새로 변신한 총각이 우는 울음 역시 지배자의 폭력성을 정당화한다. 총각은 새로 변신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로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즉, 지배층의 부도덕함과 상황의 부조리, 사또의 폭력성을 비판하기보다는 “넌들 넌들 네탓이나, 난들난들 내 탓이나, 우리 어머니 탓이로다”는 식의 자학적이기조차 한 노래를 부른다. 게다가 노래를 알아듣는 사람은 오직 각시뿐이었다.

이렇게 총각은 직접 억압자를 비판하지 못하고 새 목소리로 울 뿐이고, 그 내용 역시 자신들의 체제 내적 자조적 다툼과 상호 비난으로 되어 있으며, 사또는 알아듣지도 못한다. 심지어 새가 된 총각은 폭압자 사또에게 맞아 죽기까지 한다. 시끄럽다는 이유이다. 민중의 새 울음소리

29 강자는 늘 탐욕스럽게 착취하는 존재이니 약자인 민중이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 의식이 내면화되어, 강자인 사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란 비판의 시각이 무뎠다는 것이다.

는 알만한 자만 알아듣는 자조적 은어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배자에게는 단순한 소음 이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사또로 표상되는 지배자들은 모든 것이 ‘너희들 탓이야!’라며 호도할 수 있게 되고, 자신들이 약자의 것을 빼는 것에 타당함과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며, 나아가 지배자의 폭거가 폭력이 아님을 호도하는 알리바이를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착취의 정당화를 호도하는 기제가 마련되었다.

### 3.2. 세 개의 결말과 민중의 염원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된 〈우렁각시〉 각편을 그 결말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셋이 된다. 다음은 총 27편을 결말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 [1] 행복한 결말 (총 9편)

[1-①] 금기 없음. (5편)<sup>30</sup>

[1-②] 금기 있으나 금기 지킴 (4편)<sup>31</sup>

#### [2] 총각이 죽어 변신 (총 6편)

[2-①] 변신 후 비극적 최후 (3편)<sup>32</sup>

[2-②] 변신 후 긍정적 전망 (3편)<sup>33</sup>

#### [3] 권력자와 대결 (총 9편)

[3-①] 권력자와 옷 바꿔 입기 (4편)<sup>34</sup>

[3-②] 권력자와 승부 대결 (5편)<sup>35</sup>

30 〈우렁색시〉 4-5: 775~777, 〈우렁에서 나온 처녀 1〉 5-4: 834~835, 〈우렁색시〉 5-4: 1096~1097, 〈소라 우렁과 결혼한 총각〉 5-5: 310, 〈우렁이 속에서 나온 미인〉 6-9: 614~615.

31 〈우렁각시〉 4-6: 554~556, 〈허물 벗고 행복하게 산 우렁 색시〉 5-2: 99~101, 〈우렁이 속에서 나온 처녀〉 7-5: 318~320, 〈우렁이 각시〉 8-13: 505~506.

32 〈우렁각시〉 4-6: 192~196, 〈우렁 색시 2〉 5-2: 225~226, 〈우렁 색시〉 5-7: 420~422.

33 〈우렁색시〉 5-7: 191~193, 〈우렁 속에서 나온 미인〉 5-1: 265~267, 〈참빛이 된 우렁이 처녀〉 5-2: 537~538.

34 〈우렁색시 2〉 5-2: 165~167, 〈달팽이 각시〉 4-2: 525~527, 〈총각과 달팽이 처녀〉 2-8: 869~873, 〈우렁 색시 3〉 5-2: 167~170.

35 〈우렁에서 나온 처녀〉 5-4: 836~839, 〈우렁이 색시 덕에 임금된 사람〉 7-16: 119~121, 〈남편을 가르친 우렁색시〉 5-3: 415~421, 〈우렁이 각시〉 8-7: 541~545, 〈우렁이 마누라 얻은 총각〉 3-4: 328~334.

[미분류]: 구술 부족으로 결말 판단 유보(총 3편)<sup>36</sup>

[1]유형과 [2]·[3]유형의 차이는 사또의 개입이 이루어지느냐의 유무이다. 즉, [1]유형은 총각과 우렁각시가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마무리 되고, [2]유형과 [3]유형은 외부에서 사또가 개입해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다. [2]유형과 [3]유형의 차이는 각시를 뺀 총각이 변신하느냐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1]유형은 1차 금기가 제시되든 제시되지 않든 결국 긍정적인데, 이는 금기가 있어도 그것을 준수하기 때문이다. 이 각편의 경우 구술에 혼선이 있어 금기가 부여된 것은 분명하지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명확치 않은 각편도 있지만<sup>37</sup>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금기를 지켰음을 구술자가 강조한다.

모자간에 사는디, 참 농사를 짓고 모자간에 사는디 한번은  
아들이 가서 인제 논두렁을 경경 팸서,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누구랑 먹을꼬나!”

“나랑 나랑 먹지.”

...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고 그런개,

“아직 시간이 못 되었은개 못 허겠다.”

...

그래서 그 나흘만에 허물을 벗고 나와서 그 내우가 잘 살  
았대여.

-〈허물 벗고 행복하게 산 우렁 색시〉 5-2: 99~101

심지어 서로 택일해서 참고 지켰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도 한다.<sup>38</sup>

36 <우렁색시 1〉 5-2: 163~165, <총각과 조개 처녀〉 7-1: 271~273, <우렁 색시 1〉 5-2: 224.

37 <우렁이 각시〉 8-13: 505~506.

38 <우렁이 속에서 나온 처녀〉 7-5: 318~320.

[2-①]은 총각이 새로 변신한 후 각시를 찾아가나 사또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 최후로 마무리되지만, [2-②]는 단순히 비극이라 하기 어렵다. 실제로 [2-②]의 각편 셋 모두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한다.

아 그저는 원님이 물팍에 누워서 이를 조개 잡아 도라고  
헌게 심심헌게 굶제. 이를 잡아 준게 이를 잡고 있는게로 저  
말뚝에 가서 새가,

“는들 는들 니 탓이나? 낸들 낸들 내 탓이나? 부모 한 탓이  
제.”

그러드라우. 새가 근게 이놈이 가서 대실때로 가서 팍 때  
린게 딱 꺼울러 죽었어. 새가 그런게 그냥 각시가 서방인지 알  
고 얼른 좃어다가 살강 밑에다가 묻어 번졌드라우. 그러갖고  
는 그 그저께 아침 밥 잘 먹고 밥얻어 먹으러 와서 잘 살어. 잘  
살았어.

-〈우렁 색시〉 5-7: 191~193

즉, 새가 되어 찾아갔는데 사또가 때려 죽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각시가 주워서 살강 밑에 묻어서 결국 잘 먹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비극 문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그릇  
따위를 얹어 놓기 위하여 부엌의 벽 중턱에 드린 선반인  
살강은 여성의 공간으로, 우렁각시가 걸으로는 사또에게  
속했지만 뒤로는 총각을 먹여 살린다는 민중적 희망의 상  
상력이 개재되어 있다. 그것이 “밥을 잘 얻어먹으며 잘 살  
았다”는 다행스럽기도 하고 때론 만족스럽기까지 한 구  
술자의 언술로 맺게 한다.

총각이 죽어서 누에가 되었다는 각편<sup>39</sup> 역시 총각의 죽

39 거기서 인자 새가 나오더라요. 새가 나오는디, 새가 돼서 저 타져 죽어버  
렸는디, (죽은) 새를 좃어다가 인자 시암(쌈) 중천에다 묻어 뵈드라. 시암  
중천에 묻어 놓았는디, 각시(동네 여자)가 물을 길러 간개로 오물오물 허  
드라네. 그 거기가 막 벌격지(벌레)가 나와서. 그래서 그놈을 주서디가,  
“조선에(세상에), 무슨 놈의 벌격지가, 이렇게 있는 놈의 벌격지가 있  
나?”고 하고, 조선놈의 앞사귀를 다 건너다 주어도 안 먹더니, 뽕잎사귀를  
갓다준게 먹드라. 뽕잎사귀를 갓다 주어서 먹어서 그것이 누에가 돼디야.  
누에가 돼갖고 그렇게 뵈디야. 그것이 씨가 퍼져서 그것이 어찌께 뵈다고  
혀. <우렁 속에서 나온 미인〉 5-1: 265~267.

음이 결코 종말이나 비극이 아닌 일상에 큰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담고 있고, 죽어서 참빛이 되었다는 각편도<sup>40</sup> 단순히 패퇴로서의 비극이 아닌 긍정적 전망을 담고 있어, [2-①]과는 구분된다. 즉, [2-②]는 비극 속에서 긍정적 전망을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3]유형은 새털 옷을 입은 총각을 보고 각시가 옷자사또가 옷을 바꿔 입어서 사또가 패퇴 되는 [3-①]과 사또와 총각의 대결에서 총각이 이기자 사또가 총각을 각시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재산, 지위 등을 주는 [3-②]로 구분된다. 어쨌든 [3]유형은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3]유형은 총각이 사또의 폭력에 따른 고난을 겪지만 이를 극복하는 유형으로 [1]유형처럼 단순히 행복을 얻는 것보다 더 강인한 민중적 힘과 열망을 보여준다.

[미분류]는 [1]유형과 달리 사또가 각시를 데려갔다는 것까지만 구술하고 종결되는데, 실제로 서사가 종결되어 서가 아니라 구술자의 기억 문제로 인해 종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또가 개입하지 않는 [1]유형처럼 단순히 행복한 결말이라 할 수 없고, 사또가 잡아간 이후 그 끝이 [2]유형인지 [3]유형인지 판단할 수도 없다. 결국 종결의 긍정 부정을 논할 수 없어 <우렁각시>의 결말 유형을 판별하는데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총 27편 중 [미분류] 3편을 제외한 24편 중에서 행복한 결말로 종결되는 각편은 [1]유형과 [3]유형의 각기 9편을 합해 18편으로 [2]유형의 6편보다 많은 편수이다. 게다가 [2]유형에서 긍정적 전망을 드리우는 [2-①]의 3편을 제외하면, 확실한 비극적 결말인 [2-①]은 3편뿐이다. 이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우렁각시>가 비극적이라고 여

40 각시가 꺾어다가 문 앞에 꽃았는데 원님이 들어가려면 오도둑- 오도둑- 옷을 쥐어뜯고 ... 원님이 가져다가 아궁이에 넣었다. ... 그러자 참빛(참빛)이 되어, 각시 머리를 빗으려고 하면 설설설설 내려가고, 원님 머리를 빗으려면 오도둑오도둑 쥐뜯었다. ... 죽어서 꽃송이가 됐다. 그래 어디 가서 꽃송이가 됐다더라. 그 놈을 꺾어다 문 앞에다 꽃아 놔는데 임금님 들어 갈라면 오도둑- 오도둑-, 옷뚝 쥐뜯고-. <참빛이 된 우렁이 처녀> 5-2: 537~538.

겼던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우렁각시>의 발생적 상황이 비극적 지향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sup>41</sup> <우렁각시>를 전승해온 민중들에게는 민담적 가능성의 측면이 더 강조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실제로 [1]유형처럼 사또 개입 이전에 종결되는 이야기를 들려준 구연자들의 바람은 신산스런 삶을 사는 총각이 각시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구연자의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sup>42</sup> 분명하게 총각과 각시의 삶을 행복하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 투영되었던 것이다. 이런 민중적 바람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②]에서도 그랬다. 총각이 죽어 새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 이후에도 각시가 살강에 묻어 총각을 먹여 살린다는 서사 지향을 한 것으로,<sup>43</sup> 지배층을 속이고 무능한 폭압자를 우회하여 비웃는 방식으로 자생적 생명력을 강조한다. 겉으로는 사또가 이겼으나, 실제로는 사또는 바보인 어수룩한 조롱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즉, 각시는 현재 사또에 속해 있지만, 그녀는 진정한 마음으로 실제 먹여 살리는 탄 서방을 둔 것이다. 심하게 말해 사또를 오쟁이 지게 하는 것이고, 탄 주머니를 차서 사또를 농락하는 것이다.

민중의 염원은 특히 [3]유형에 나타나는데, [3-①]은 지배층에 대한 풍자의 측면이 강조되고 [3-②]는 민중의 당당한 대결의 측면이 부각된다.

[3-①]에선 사또의 어수룩함이 강조되어 드러난다. 새털 옷을 입고 나타난 총각을 보고 사또가 먼저 자발적으로 옷을 바꿔입기를 요구하는데, 이는 옷으로 상징되는 지배층의 지위가 상실됨을 의미한다. 즉, 지배적 형식적 외형

41 <우렁각시>의 발생적 상황이 과연 비극적 지향이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본고의 논의를 벗어나는 문제로 별도의 연구를 통해 밝히기로 하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 전승되어 유포된 <우렁각시>의 측면에서 볼 때, 비극적 지향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민담적 가능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변해갔을 것은 분명하다. 그런 변화의 이유는 민중적 바람과 염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42 이런 유형은 [미분류]로 걸러냈다.

43 <우렁쌈시> 5-7: 191~193.

적 지위의 허실을 비판한 것이다. 다시 말해 옷이 바뀜으로 인해 그 존재의 본질은 아무 것도 아닌 거지와 다름없는 존재라는 것을 풍자한 것이다. 기실 [3-①]은 총각이 새털 옷을 입고 나타난 대목부터는 판소리와 같은 희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②]는 각시가 총각을 성장시켜 대결하도록 만든다. 잡혀가는 각시가 총각에게 “둥글기 삼 년 허고 뛰기 삼 년 허고 배워갖고 오라”고 하기도 하고,<sup>44</sup> “활 삼 년, 글 삼 년, 뚝 삼 년 석 삼 년을 배아가주 서울 장안으로 날 찾아 온 너라” 하기도 한다.<sup>45</sup> 이런 훈련을 성실히 수행한 이후 총각은 임금을 퇴치하고 각시와 행복하게 산다.

혹은 임금과 총각이 ‘말 타기, 장기 내기, 강 건너기’ 등의 대결을 하는 것<sup>46</sup>이나, ‘빈대 닷 말, 벼룩 닷 말 구해 오기’나 ‘웃는 꽃과 말하는 돌 구해 오기’<sup>47</sup>, ‘웃는 꽃 구하기와 메뚜기 석 섬 구하기’와 ‘명마를 구해 강물 뛰어넘기’처럼 기이한 물건 구하기 화소와 경쟁 화소가 습합<sup>48</sup> 되기도 하는데, 모두 각시의 도움으로 총각이 임금을 이기게 된다. 이런 [3-②]는 전설적 패퇴의 서술이 아닌 민담적 발달성이 더 강조되어 드러난다.

〈우렁각시〉의 결말을 크게 구분하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바람이 담긴 이야기 ([1]유형)들과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이 괴로움을 극복해서 결국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 ([3]유형), 그리고 지배층의 위압에 의해 비극적 슬픔으로 종결되는 이야기 ([2]유형)이다. 그러나 비극적 종결에서조차 민중은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 전망을 끊임없이 제기한다.

〈우렁각시〉 이야기가 발생적 측면에서 비극성을 지니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전승한 민중들은 그 비극성에 머물지 않고 긍정적 전망을 강화시킨 것이다. 그래

서 지배자 사또의 착취가 정당화될 정도로 자신들이 억눌려 있음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 ([2-①])에서 지배자를 속이고 ([2-②]), 지배자와 대결하고 ([3-②]) 지배자를 패퇴시키는 ([3-①])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각편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우렁각시〉에는 사회적 체제에 얽매어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 시선을 잃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는 민중의 열망이 짙게 서려 있다.

#### 4. 결론

그동안 〈우렁각시〉를 비극적 종결로 끝나는 설화로만 여겼지만, 〈우렁각시〉는 민중적 희망과 바람을 담은 긍정적인 설화임을 살펴보았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총 27편의 각편 중에서 비극적 종결은 단 3편뿐이었고, 나머지는 행복한 결말이거나 비극적 상황에서도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는 희망적 종결로 이야기를 맺고 있다.

〈우렁각시〉를 단순히 비극적 결말로 파악했던 것은 〈우렁각시〉에 나타난 두 개의 금기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개의 금기로 구분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렁각시’에 성적 기표와 풍요 기표라는 두 측면이 존재함을 구분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렁각시〉에 나타난 두 기표와 두 금기, 그리고 세 개의 서로 다른 결말은 〈우렁각시〉를 향유하고 전승했던 민중들의 열망이 담겨 있고, 인간이 지닌 욕망과 욕심 문제를 민중적 시선에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민중들의 결핍된 상황은 ‘우렁각시’가 지닌 두 측면에 의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총각을 비롯한 인물들은 각시의 한 측면만을 집착함으로써 각시의 총제적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한 측면만 추구함으로써 욕망이 욕심으로 전화하고, 그렇게 욕심으로 변질된 욕망은 대상을 소비하고 착취

44 〈우렁에서 나온 처녀〉 5-4: 836~839.

45 〈우렁이 색시 덕에 임금된 사람〉 7-16: 119~121.

46 〈남편을 가르친 우렁 색시〉 5-3: 415~421.

47 〈우렁이 각시〉 8-7: 541~545.

48 〈우렁이 마누라 얻은 총각〉 3-4: 328~334.

하기에 이른다. 이런 욕심의 소비와 과잉된 욕망 문제를 제한하기 위해 금기가 제시되었지만, 욕심에 빠져 한 측면만 몰두하는 인간은 금기를 깨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금기가 깨짐으로써 불행이 초래되고 마는데, 그 불행은 우렁각시가 더 이상 성적 의미에서나 풍요 의미에서나 작용하지 못하는 거세된 상태가 되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불행한 결말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만, 전승자들은 민중적 바람과 염원을 담아 가능성에 초점을 둔 전망을 꾀했다. 그렇게 서로 다른 3개의 결말을 만들어내었다. 그렇게 단순한 희망의 긍정적 결말과 고난을 겪지만 극복해서 행복해지는 결말, 부정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패퇴하지 않고 희망의 긍정적 바람을 투사하는 결말을 만들어냄으로써, 부정적 결말보다 훨씬 더 많은 긍정적 결말을 추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렁각시>가 설화 발생적 상황과는 별개로 민중적 열망을 담은 긍정적 전망의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면면히 전승된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1980~1984.

### 2. 단행본 및 논문

권택영 편, 『자크리랑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2000.

김군태, 「<우렁이 색시> 각편의 유형과 의미」, 『문학치료연구』 1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김복순, 「화수분설화에 투영된 기저 의식과 담론 양상」, 『동아시아고대학』 31, 동아시아고대학회, 2013.

김영미, 「<우렁각시> 설화에 나타난 '환상성'과 '소문' 모티프 연구」, 『한민족어문학』 88, 한민족어문학회, 2020.

김종균, 「<왕이 된 새색이>설화의 서사적 특성과 의미」, 『겨레어문학』 38, 겨레어문학회, 2007.

김현룡, 「螺中美婦說話形成考」, 『국어국문학』 55~57, 국어국문학회, 1972.

김혜미, 「설화 <우렁이 색시>, <용자 살리고 얻은 색시>, <새털 옷 입고 왕이 된 남자>에 나타난 여성의 행동방식과 관계 지속의 문제」, 『겨레어문학』 48, 겨레어문학회, 2012.

노제운, 「<나무꾼과 선녀>, <우렁각시> 설화의 정신분석적 의미 비교연구」, 『어문논집』 57, 민족어문학회, 2008.

블라디미르 프로프, 유영대 역, 『민담형태론』, 새문사, 1987.

블라디미르 프로프, 최애리 역, 『민담의 역사적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0.

서은경, 「<우렁각시> 설화의 관음영험담적 조명과 의미」, 『민속연구』 34,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서은아, 「현대 고부갈등 해결을 위한 <우렁이 색시>의 문학치료적 가능성 탐색」,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2006.

손진태,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신동훈, 「설화 속 화수분 화소의 생태론적 고찰」, 『구비문학연구』 39, 한국구비문학회, 2014.

\_\_\_\_\_, 『민담형 인간』, 한겨레출판, 2020.

안상훈, 「러시아 민담 <아름다운 아내>와 한국 민담 <우렁각시> 비교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2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유광수, 「만남과 깨달음으로 본 <洛山二大聖 觀音·正趣, 調信>의 의미」, 『연세어문학』 32, 연세대국어국문학과, 2000.

유증선, 「조개색시구훈민담소고」, 『한국민속학』 5, 민속학회, 1972.

윤혜신, 「입사식의 구조를 통해 본 설화의 유형과 변이양상 연구: <우렁이 색시>를 대상으로」, 『연민학지』 9, 연민학회, 2001.

이성희, 「<고난극복형> <우렁이 색시 설화>의 신화적 성격」, 『구비문학연구』 43, 한국구비문학회, 2016.

\_\_\_\_\_, 「<우렁이 색시 설화> 연구: <용녀귀환설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39, 국립민속박물관, 2016.

이수자, 「<우렁이 색시>형 설화의 연구: 변이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7, 이화여자대학교, 1984.

장벌맹-노엘, 최애영·심재중 역, 『문학 텍스트의 정신분석』, 동문선, 2001.

정상진, 「<나중미부>설화의 전승양상과 비극성」, 『한국문학논총』 33, 한국문학회, 2003.

조동일, 「自我와 세계의 소설의 對決에 관한 試論」,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주경철, 『신데렐라 천년의 여행』, 산처럼, 2005.

주재우, 「조선족 우렁이 색시 설화의 변이양상과 의미」, 『어문논집』 50, 중앙어문학회, 2016.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2001.

최래욱, 「관탈민녀형 설화의 연구」, 『장덕순선생 화갑기념논문집』, 장덕순선생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981.

---

**Abstract****Desires and People's Wishes Embedded in the Two Signifiers and Two Taboos of <Snail Maiden>**

Yu, Gwang-Su | Yonsei University

<Snail maiden> is a tale about the marriage of different beings, in which a snail turns into a woman and marries a man. That is folklore known to cause a tragic situation because of a man breaking a taboo. However, looking at the versions passed down, it is hard to call it a tragedy. Rather, many versions offer a happy ending or a positive outlook for overcoming hardships. That was because the two lacks and the two taboos in <Snail maiden> could not be discerned. Due to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desire and lack in an antagonistic relationship could not be figured out.

Snail maiden has both a sexual signifier and a richness signifier. This paper revealed how human desires are converted to greed, analyzing those two signifiers. Also, the action caused by the collision of desire and the mechanism by which the exploitation of the ruler is justified was analyzed.

Furthermore, by analyzing the three different endings of <Snail maiden>, it was found how the people's aspirations and wishes affected the transmission process.

**Keywords** snail maiden, signifier, taboo, the powerful man's taking someone's wife away, marriage of different being, folklore, lack

---